

“왕궁현업축사 전량 매입”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첫 삽

내년 2월 준공...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등

“올 하반기 골든타임”... 정현을 익산시장 강력 의지 피력 간부회의... 관내 작은 도서관 40여곳 이용상황 점검 주문

정현을 시장이 3일 오전 열린 간부 회의에서 그 간 축산인원과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왕궁현업축사의 100% 매입 달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 시장은 “10년 가까이 공들여 추진해 온 왕궁현업축사 매입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가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기묘에 서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

는 지원책과 함께 강력단속을 시작할 때”라며 “주책과를 필두로 관련 부서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현을 시장은 관내 작은 도서관 40여개의 이용 상황 점검도 주문했다.

정 시장은 “시립도서관과 익산어린이영양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성인 및 어린이 대상 문화강좌는 매 시즌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작

은 도서관은 지역에 따라 이용객의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방문자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에서도 시민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익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이행점검에 대한 종교시설의 반감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시에서 시행하는 방역 점검이 종교단체에 대한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찾아가 몸소 성의를 보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착공한다.

군산시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지역농업 발전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 농식품부 주관 푸드플랜 APC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약88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및 올해 4월 실시할 예산 후 7월 착공, 내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상산면 창오리 560-20번지에 지상 2층 규모(부지 2,489.5㎡, 연면적 1,816.1㎡)로 신축하게 되며, 1층은 저온저장고 출하대기실 및 선별실 등 창고시설, 2층은 사무실로 구성하여 일일 처리능력이 9톤일에서 약 3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 먹거리를 학교 등에 공급하는 학교급식 사

업 확대, 지역 농산물 상품 개발 연구, 원료 농산물 가공 활성화, 소비자 직거래 사업추진 등 로컬푸드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급식인원은 현재 600만명에서 2,2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영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를 일선 공공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과 동시에 지역 농가에서는 생산 농축수산물에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학교·복지·공공·기업급식 나아가 새만금 지구의 신생기업에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가공품 공급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사업영역 확장 및 지역순환경제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지역 소식통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군산시, 활성화 간담회

군산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독려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간담회’를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 관공소 주무계장 등을 대상으로 군산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으로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과 성공사례에 대한 교육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부서 물품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기업홍보와 판로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유자 일자리정책과장은 “공공구매가 활성화되어 사회적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대, 등록금 10% 이상 재학생 전원에 특별장학금

교직원·지역사회 모금 참여 목표액 초과한 7000만원 마련

군산대학교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학비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던 ‘코로나19 학업지원 특별장학금 모금캠페인’을 종료하고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군산대학교가 학비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던 ‘코로나19 학업지원 특별장학기금 모금캠페인’을 종료하고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 수입액의 10% 이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산대학교는 목표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지난 20일부터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직원 및 지역사회가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 결과, 애초 목표액인 5000만원을 초과한 7000만원에

달하는 성금을 모금하는 성과를 냈다.

특별장학금 모금에는 박병선 총장, 군산대재직동문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조교협의회, 군산대 총동문회, 군산대 학생회 및 지역사회 단체, 교직원 등이 참여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유희숙 익산부시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유희숙 익산부시장이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유 부시장은 3일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꿈마루협동조합(대표 윤정미)과 취약계층을 고용해 목공예 사업을 추진하는 (유)사자사(대표 권순보)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대표와 종사자들을 격

려하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김창준)를 방문하여 사회적 경제 현황과 추진사업을 보고 받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유 부시장은 “센터가 설립 이후 3년 동안 노력해온 결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갖게 됐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

쟁이 아닌 협동을 통한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지원해줄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 설립되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및 네트워킹, 교육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지원업무를 추진해 왔다. 익산시 사회적 경제조직은 216개 기업(예비)사회적기업 43, 마을기업 10, 협동조합 147, 자활기업 16)으로 구성되어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맞춤형 친절행정 시민 만족도 ‘UP’

지난해 하반기 대비 상승 직원들 친절 마인드 향상

익산시의 친절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전년보다 상승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도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친절 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상반기 친절행정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만족도 94.32점을 획득해 지난해 하반기 대비 1.7점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어 부서를 직접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직원들의 친절도 조사 점수도 94.32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22점 올랐다.

이는 시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친절행정 구현’을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이다.

시는 올해 초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친절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4가지 전략으로 구성된 종합계획을 수립해 친절행정 인척에 힘써왔다.

우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

육을 꾸준히 실시해 친절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서비스 마인드가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해 강사 자격 취득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 후 친절 전문 내부 강사로 양성했다. 현재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 7명으로 매주 10개 주요 민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직원들이 친절행정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일과 시작 전 관련 내용을 방송해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이버 학습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 학습은 행정시스템 첫 접속 시 학습화면이 자동으로 실행돼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 하반기로 나눠 경력별 맞춤형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신규공무원들은 친절 서비스 마인드 기본 소양교육을, 부서장들은 친절행정 조직관리와 리더십 교육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친절서비스 응대 매뉴얼 1,700부를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포해 부서별 자체 친절교육이나 신규공무원 교육지침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친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분기별로 친절 공무원을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 고용위기 지원센터 ERP기초과정 교육생 모집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생산제조 오퍼레이터분야 취업을 위한 ERP기초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생산제조 오퍼레이터분야’ 취업을 위한 ERP기초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기업생산환경이 자동화와 스마트화됨에 따라 제조현장에서 필요한 오퍼레이터 양성과정으로 생산정보시스템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ERP개념과 생산이론을 배우고 ERP 프로그램을 활용한 물류관리 실무프로세스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진행된다. 기업에는 현장에서의 ERP관리 가능한 작업자를 제공하고, 생산제조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는 변화하는 제조업의 환경을 이해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재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군산=한영봉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